

투데이 칼럼

김정은과 김여정의 연설

북한 김정은과 김여정의 연설을 놓고 역할 분담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비상 방역전에 투입됐던 군인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릴 만큼 연설 솜씨가 아주 좋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육성 연설을 통해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최근 코로나19 방역사업에 투입됐다 귀대한 북한 군인들이 한자리에

미안함에 이어 고마움까지 거듭 강조하며 감성적으로 이어진 연설문이었다



정복규
논설위원

눈물까지 흘렸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육성 연설을 통해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연설을 끝낸 직후에도 위치를 잡지 못하고 서성이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은 일취월장했다는 평가다. 군중의 합성에 작은 손짓으로

변화의 조짐이 본격화 된 건 2020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연설을 끝낸 직후에도 위치를 잡지 못하고 서성이는 모습도 공개됐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육성 연설도 공개

이 내부를 다독이고 격려하는 것과 달리, 김 부부장은 코로나19 발생

무엇보다 김 부부장은 남측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거론했다

그러나 보니 북한 당국의 의도와 달리 국제사회는 물론, 주민들에게

따라서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답화 같이 향후 미국과 한국과 협상할

반면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은 한층 그 솜씨가 늘어났다

사설

임실 소총사선문화제 양영두 위원장

2022년도 사선문화제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국민관광지 사선대에서 개최됐다

양영두 위원장은 "광복 77주년을 맞아 코로나19를 이겨낸 위대한 문화 국민을 위한 향토

소총·사선문화상 대상 수상자는 이항중 신홍무관학교 기념사업회 공동대표가 선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

최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1987년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함으로써

이곳에서는 1975년부터 1988년까지 657명이 숨졌다

수용인은 감금상태에서 강제 노역,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 인간 존엄성을

문화연구소장이 받았다. 부문별 수상자는 △문화예술 박명성 (썬시커피퍼니 예술총감독

한편 양영두(梁永斗) 위원장은 1987년 제1회 사선문화제를 시작으로 36년째 소총사선문화

소총·사선문화제는 구한말 전북에서 거병한 이석용 의병장과 휘하 의병 28명 의사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주민들 폭동이 없거나, 집 잃은 어린 아이처럼 혼령의 실체

형제복지원에서 감금생활을 했던 이들은 "형제복지원 입소자들은 대부분 죄가 없었다

2014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형제복지원 생존자 11명은

생존자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해져 있다. 이들이 모욕당하고 자유를

사건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대학생 43명 실종 사건 규명 요구하는 멕시코 시위대



지난 22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 있는 검찰총장 집무실 밖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포르 교환으로 석방된 우크라이나 군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포르 교환으로 석방된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체르니히우 시립병원에서 V를 그리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 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